

민선4기 과제와 전망

민선3기 경쟁력 높이기 성적표

광주 광산업 등 생산도시 '기반' 전남 J프로젝트 등 돌파구 마련

지난 2002년 출범한 민선 3기 최대 캐치프레이즈는 '지역경제 살리기'였다. 모든 지자체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지역 부의 증대를 자치행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광주, 산업고도화 서둘러야 전남, 특화산업개발이 유리

◇기반 마련한 광주=민선 3기 광주시의 최대 중점과제는 '생산도시 만들기'였다. 그러나 제조업 성장률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6.2%로 9위에 그쳐 생산도시화의 결실을 기대하기는 아직 서부르다는 분석이다.

Table with 5 columns: 순위, 시도, 2001년, 2004년, 성장률(%). Rows include Chungcheong, Gyeonggi, Gyeongsang, Jeolla, and Seoul.

Table with 5 columns: 순위, 시도, 2001년, 2004년, 성장률(%). Rows include Daejeon, Gyeonggi, Jeonbuk, Gwangju, Incheon, Ulsan, Busan, Gyeonggi, Gyeongju, Jeonju, Jeonnam, Seoul, Daegu, Jeonnam.

중하위권에 그쳤다. ◇돌파구 마련한 전남=농림수산업 종사자가 많고 산업기반은 여전히 열악한 데 인구감소까지 겹쳐 성과는

전체적으로 미진했다. 기업투자유치를 강조하고 생산기반 확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제조업 증가율은 12.5%, 건설업은 11.5% 증가로 모두 11위에 그쳤다.

더욱이 아직도 지역산업 가운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림어업 생산증가율은 오히려 1.5% 줄어들어 전통적인 산업기반 유지마저 어려운 실태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저조한 생산활동은 지방재정자립도를 떨어뜨렸고 중앙정부의 존도를 높여 지방자치의 근간 이념인 자율성을 크게 해쳤다. 저조한 지역 생산력은 2001년 말 14·3%였던 전남도(본청)의 재정자립도를 2004년 말 13·5%로 0.8%p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됐다.

그러나 전남도는 서남해안 레저관광도시조성(J프로젝트) 사업과 중남부권 개발플랜, 동부권 산업기반 확충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전력했다는 평을 받았다. 민선 4기에는 같은 기초작업을 발판으로 지역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일이 중요 과제로 떠올랐다.

◇경쟁력 증대가 우선=민선 4기에도 광주·전남 지방자치 성공의 관건은 지역경쟁력 증대에 모아진다. 이걸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산도시화 전략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광주는 기존의 핵심업종을 중심으로 산업고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또 "전남은 무분별한 제조업 확장보다는 지역특화산업 개발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관 출신 절반 이상...안정성에 무게

재야·검찰 몫 등 안배... '파격 발탁' 없을 듯

대법관 후보 15명 추천

대법관 5명을 새로 뽑는 대규모 인사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5일 추천한 15명의 대법관 제청 후보는 예상대로 법원 내부와 재야, 지역, 검찰 몫을 고려한 '안배'가 눈에 띄었고, 사법시험 기수와 서열에서도 두드러진 '파격'은 없었다.

◇정통법관 절반·검찰 인대회·김희옥 압축=정통법관 출신으로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이우근 서울행정법원장(이상 14회),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15회), 민형기 인천지법원장(이상 16회), 차한성 제주지법원장(17회),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신영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관사(18회),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19회)이 추천됐다.

전체 추천자 15명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정통법관 출신으로 추천됨에 따라 기존 법원 내부에서 대법관을 선택할 수 있는 이홍훈 대법원장의 선택 폭도 넓어지게 됐다.

참여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6명 가운데 정통법관 출신이 절반인 3명 뿐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에 임명될 5명의 대법관 중 정통법관이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다.



5일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용훈(가운데) 대법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반은 넘어야 한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지역 법관으로는 김능환 울산지법원장과 김중대 창원지법원장(이상 17회)이 포함됐다.

관심을 끌었던 재야 법조 몫으로는 한상호 변호사(16회)가, 학계에서는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16회)와 채이식 고대 법대 교수(11회)가 추천됐다. 강신호 대법관의 후임인 검찰 몫으로는 안대희 서울고검장(17회), 김희옥 법무부 차관(18회)으로 압축됐다.

사시 기수로는 11회부터 19회가 포함돼 지난 번 대법관 인사 때처럼 21회까지 내려가지는 않았다.

출신 대학은 김희옥 차관(동국대 법대)과 채이식 교수(고대 법대)를 제외하고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김 차관과 채 교수가 각각 검찰, 학계 몫인 점을 감안하면 비서울대 출신을 고려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우근, 이홍훈, 김능환 원장과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안대희 고검장, 한상호 변호사 등 6명이 경기도 선출 후보 사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안정성에 무게 둔 대법원 꾸러질 듯=법원 내부 인사가 15명중 10명이나 되는 점을 고려

Table with 6 columns: 성명, 현직, 나이, 사시 기수, 본적, 출신학교. Lists 15 candidates for the Supreme Court.

하면 5명 중 3명은 법원 내부에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내부 인사로는 14회 2명(이홍훈, 이우근), 15회(박일환), 16회(민형기), 17회(차한성, 김능환, 김중대), 18회(전수안, 신영철), 19회(목영준) 등 14~19회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 중 고현철 대법관이 10회, 김용담 대법관이 11회 출신이고 가장 후배인 김영란 대법관은 21회인 점에 비해 안정성에 무게를 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5명의 대법관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지만, 깜짝 인사이나 파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야 몫인 한상호 변호사도 1998년 수원지방법원 부장관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어 시민단체 등이 주장해온 '정통재야'에서는 한 걸음 비켜서 있다.

정통 법관으로 추천된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의 경우 '제2의 여성 대법관'이 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당 독주 우려...의정감시단 구성 감시"

유종필 광주시당 위원장 간담회

민주당 유종필 광주시당 위원장은 5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지방의회를 독식한 데 대해 "민주당의 일당 독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의정감시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장 자체적으로 의정감시단을 모집해 의원들(시의원, 구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도록 하겠다"며 "평가결과 는 원구성과 공헌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지만,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해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민주당개혁의 적자인 민주당은 민

주개혁세력 복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론과 시민사회단체도 민주당 감시를 더 강화해달라"며 "민주당 광주시당은 쇄신과 개혁을 강화해 지지해준 시민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지방선거는 촉구경기로 비유하자면 전반전에 불과하다"며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은 풍찬노숙과 와신상담, 권토중래, 절치부심외의 고사성어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기미, 검은반점치료에

도미나크림은 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도미나 크림은 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반점등, 피부에 과도하게 침착된 멜라닌색소를 효과적으로 억제, 개선시켜 주는 치료를 위한 의약품입니다.

도미나크림은 초저해독 히드로퀴논(주성분)에 17종의 크림기제를 복합적으로 배합시킨 의약품으로, 자외선에 의해 피부 부위에 침착된 멜라닌색소의 생성을 억제하여 기미, 주근깨, 노인성 검은 반점의 원인인 색소침착 현상을 깔끔하게 개선, 치료하여 줍니다.

치료를 위한 의약품

도미나 크림

※ 하루 1번, 저녁에 바르세요. ※ 피부에서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탈모증 치료제 모바린 액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직접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